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 드론, 여객기 그리고 미사일

2020년 새해 벽두 두 대의 비행기가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나는 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는 데 사용한 드론 'MQ-9 리퍼'이고, 다른 하나는 이 암살 사건 여파로 이란 미사일에 맞아 176명의 탑승자와 함께 폼비박산이 난 보잉737 여객기다. 드론, 여객기, 미사일이 더욱 많아질 세계의 하늘은 더욱 위협해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폐기한 것은 2018년이었다. 그해 미국·이란 관계가 험악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이란의 응수는 대통령 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란 군 소장의 입에서 나왔다. "우리 대통령이 응답하는 것은 체면 깎이는 일이다. 내가 군인으로 대답해주마." 이렇게 미국 대통령의 격을 떨어뜨리며 약을 올린 인물은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다. 지난 1월3일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 암살되었을 때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에피소드다.

솔레이마니가 얼마나 위협적이었고 미웠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에 대한 암살계획을 승인하고 드론 공격으로 암살을 집행하는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을까.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곳은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이다. 솔레이마니가 시리아에서 민간항공기를 타고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하고 이동하는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자동차에 탑승해 공항을 빠져나가는 순간 MQ-9 리퍼 무인기가 공격하여 자동차를 포함한 일행을 폭사시켜 버린 것이다.

새벽 1시에 사람과 차량이 복잡하게 얽혀 있게 마련인 공항 구내에서 마치 핀셋이 목표물을 뽑아내듯이 솔레이마니가 탄 차량만 폭파시켰다. 이 완벽한 제거작전은 MQ-9의 탁월한 성능, 위성통신, 현지 정보탐지능력이 결합되어 나왔다.

한때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외과수술식 폭격(surgical strike)이 거론된 적이 있다. 영변핵시설만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파괴한다거나 북한에 남북되어 대동강에 전시 중인 미국의 남북

합정 푸에블로호를 파괴함으로써 북한권력자를 겁주게 한다는 언급이었다.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외과수술식 폭격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하는 일이었다.

드론 MQ-9 리퍼는 미사일 등으로 완전 무장하고 14시간에 걸쳐 6000km를 날며 작전을 펼칠 수 있다. 미 공군이 이 드론을 195대를 보유하고 있다니 가공할 전력이다.

드론은 미국만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니다. 중국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 군사용 드론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도 드론으로 작전 사수다 유전을 폭격한 적이 있다. 어쨌든 솔레이마니 암살 작전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공격용 드론 개발과 배치에 속도를 낼 것이다. 한국도 북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감탄했고, 드론의 산업적 활용가치를 상상하며 사람들은 긍정적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 군사용 드론의 발달을 상상하면 가공할 일이다.

솔레이마니 암살이 일으킨 비극은 민간 여객기 격추사건이다. 미국의 드론 공격에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고, 8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 두 곳을 지대지 미사일로 공격했다. 미국의 드론 공격과 이란의 미사일 보복공격이 오가는 와중에 이란 테헤란 공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미사일을 맞고 추락했다.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란 군부는 추락 원인을 놓고 모른다고 발뺌을 하다가 서방 언론이 비행기가 미사일에 맞는 장면을 보도한 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적의 공격으로 오인하여 발사한 미사일이었다고 격추사실을 인정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관제사의 허가를 받고 이륙한 여객기가 3분 만에 이란군의 미사일로 떨어진 것이다.

미국·이란의 충돌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그냥 넘겨 버리기에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 없는 사건이다. 이란 군의 민항기 식별능력, 이란정부의 항공관제 능력, 우크라이나항공의 위험예방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비극이다.

30년 전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비행기 여행은 대중화되었다.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항로로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란 갈등에서 빚어진 불행한 사건과 같은 일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여객기도, 전투기도, 미사일도, 그리고 드론도 더 많아지고 있다.

## 社 說

### 대학병원들 우한폐렴 대비해야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네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했다니 광주지역 대학병원들도 분주하다는 전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병원들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도 부단하다.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두 병원은 환자면회를 제한하고 출입구도 일부분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상황을 봐가면서 수위조절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대병원은 환자 가족들의 면회방식에 관해서도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

두 병원은 '우한폐렴' 관련 안내문을 병원 입구에 게시했고, 의료인력과 간병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손씻기, 기침예절, 보호구 착용과 같은 감염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중국방문력, 확진환자 접촉력, 호흡기 증상 등 의심환자나 신고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

비해 전남대병원은 이날 오전 응급실 앞에 선별진료소 1개 등을 설치했고, 조선대병원도 선별진료소 설치를 논의 중이다.

지난 28일 현재 전남 능동감시자 1명, 광주 능동감시자 2명이 질병관리본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50대 여성은 인플루엔자 해당검체 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귀가 조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예방만이 최선이다. 될 수 있으면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느 누가 보건자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능하면 대인접촉을 제한하며 주변에 기침을 하는 환자가 있을 시 신속히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날로 기세를 떨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8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이물질에 의한 질식, 응급상황 행동요령 숙지 필요

우리 고유 명절인 설 연휴 동안 고향에서 가족과 친지 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떡, 나물 등 설 음식을 함께 챙겨서 보내는데 떡을 먹을 때 질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떡에는 인절미, 가래떡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사

고기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 도착 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면 산소공급 부족으로 보통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고 4~6분이 지나면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기도가 막힌 사람이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호흡을 아예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황하지 말고 환자의 등 뒤에서 환자를 안은 뒤 손으로 깎지를 끼어 환자의 복부(검상돌기와 배꼽 중간)를 힘껏 밀어

올려 막힌 떡을 토해내도록 한다. 이것이 하임리히법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팔에도 힘을 함께 주면 환자의 늑골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복부를 밀어 올리는 손에만 힘을 줘야 한다.

혼자 있다가 기도가 막혔을 때는 스스로 탁자 및 의자 모서리에 배꼽 부분을 대고 압박을 가하고 복부에 살아 쥔 사람 등 복부를 밀어올리기 힘든 사람은 등 뒤에

서 가슴을 안고 압박을 가하는 등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가족 등 주위사람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환자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주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므로 응급상황 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물질에 의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의 음식물은 작은 조각으로 썰어서 먹고 땅콩이나 사탕 등의 간식을 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주는 것을 피하도록 하자.

한신근 / 보성소방서 소방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영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7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브로드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